

『도서관연구소』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A Study of Long-term Development Plan of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ibrary and Information

윤 희 윤(Hee-Yoon Yoon)*

< 목 차 >

I. 서론	5. 일본의 산타마도서관연구소
II. 외국 도서관 연구기구의 분석과 시사점	III. 도서관연구소의 중장기 발전방안 모색
1. 미국의 국가도서관정보학위원회(NCLIS)	1. 중장기 발전방안의 비전과 목표
2. 영국의 박물관·도서관·문서관평의회(MLA)	2. 법정 업무와 전략적 과제
3. 체코의 도서관연구소(LI)	3. 위상정립과 성장·발전 모형
4. 헝가리의 도서관연구소(HLI)	4. 운영협력 및 연구협력 체계
	IV. 요약 및 결론

초 록

본 연구는 『도서관연구소』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주요 외국의 도서관연구 및 관련기구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또한 도서관연구소를 SWOT 분석하고, 문헌정보학 분야의 교수를 상대로 도서관연구소의 바람직한 역할과 위상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도서관연구소의 비전과 목표, 전략적 추진과제, 바람직한 위상과 조직체계, 중장기 성장·발전 모형, 내적 운영협력 및 대외 연구협력 체계 등을 제안하였다.

키워드: 도서관연구소, 중장기 발전방안, SWOT 분석, 성장·발전 모형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esent a long-term development plan for the KRILI(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ibrary and Information). To do so, authors analysed a various library research institutes and related organizations in U.S.A., U.K., Czech Republic, Hungary, and Japan. And using the SWOT analysis, author identified and described the current status and also surveyed recognition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faculties as to desirable roles and phase of the KRILI. Based on the results of analysis and survey, this paper suggested a long-term plan(vision and objectives, strategic issues, desirable phase and organization system, growth and development model, internal cooperative operating systems and external research cooperation system, etc.) of the KRILI.

Keywords: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ibrary and Information, Long-term Development Plan, SWOT Analysis, Growth and Development Model

* 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yhy@daegu.ac.kr)

• 접수일: 2008년 4월 29일 •최초심사일: 2008년 5월 26일 •최종심사일: 2008년 6월 21일

I. 서론

아날로그 시대의 도서관이 인쇄자료를 수집·보존하여 대중의 문자해독과 평생학습에 기여하였듯이 디지털 시대의 도서관은 대중 뿐만 아니라 연구집단의 지식정보 해독력과 접근성을 제고시키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도서관의 사회적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는 비판적 시각이 많았으며,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 배경에는 국가정책의 부실과 한계, 지방행정 및 자치단체의 무관심과 관료주의, 도서관계의 무사안일과 현실주의, 사서직의 역량부족과 의태심, 전문직 단체의 리더십 부족과 취약성, 일반대중의 무지 등이 자리하고 있으며, 이들이 상호작용하여 사회적 역할의 후진성을 초래하고 있다. 모두 전향적 사고와 적극적 행위로 개선·보완해야 하지만, 특히 국가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하다. 개정 「도서관법」의 제19조 제2항이 ‘도서관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를 담당할 도서관연구소를 설치하도록 규정한 이유도 국가책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2007년 7월 13일자로 국립중앙도서관에 도서관연구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이 연구소는 국내에서 유일하며 국제적으로도 사례가 드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연구소는 출범 자체의 의미보다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어떤 지향성에 입각하여 조직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안정화시킬 것인지를, 어떤 조사·분석이 시급하고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어떤 정책적 메뉴와 개발과정을 전제로 도서관 시스템과 서비스의 발전, 사서직 역량의 제고, 대국민 서비스의 강화 등에 기여할 것인지를 숙고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2007년에 수행하였으나 미발표한 연구결과¹⁾를 수정·가필하는 방식으로 문헌 연구와 방문조사를 통한 외국의 도서관 및 관련 연구기구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교수집단을 상대로 설문방식으로 인식도를 조사하여 도서관연구소의 미래지향적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부연하면 외국의 유사한 사례를 정밀 분석하여 벤치마킹하고, 도서관연구소를 SWOT 분석하며, 설문조사한 결과를 배경정보로 삼아 바람직한 청사진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II. 외국 도서관 연구기구의 분석과 시사점

1. 미국의 국가도서관정보학위원회(NCLIS)

미국의 의회도서관(LC)은 약 4,500명으로 구성된 세계 최대 규모의 국가도서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두지 않은 채 도서관 및 정보서비스에 관한 연구기능을 수

1) 윤희운 외, 도서관연구소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2007).

행하고 있다.

그 대신에 범국가적으로는 1970년 「Public Law 91-345」에 근거하여 대통령 직속의 상설 자문기구로 설치된 국가도서관정보학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n Libraries and Information Science)가 연방정부 차원의 도서관 및 정보시스템을 조사·연구·자문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NCLIS의 목표는 도서관 및 정보서비스를 평가·개선하고, 연구개발을 진흥하며, 도서관 및 정보학의 현실적 타당성을 강화하는데 있다. 이를 위한 주요 조사분석 및 연구활동을 적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다양한 방법(성명서, 안전제시, 보고서 제출 등)으로 국가차원의 도서관·정보정책과 관련된 내용과 현안을 대통령과 의회에 자문한다.
- ② 도서관 및 정보서비스의 전국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총체적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방정부, 주정부, 지역단위의 활동계획을 작성·개발한다.
- ③ 범국가적 도서관·정보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조사·분석하고, 이러한 요구가 다양한 도서관과 정보센터를 통하여 충족될 수 있는 지를 분석·연구한다.
- ④ 도서관·정보자원 및 서비스의 충분성, 문헌정보학교육의 효과성을 평가한다.
- ⑤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의 산하기관이나 민간기관에 문헌정보학의 이론과 기법을 자문한다.
- ⑥ 전국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의 중요한 연결기능으로서 국가의 도서관·정보해득력을 확장하고 제고시킬 수 있는 연구개발 활동을 증진시킨다.
- ⑦ 매년 위원회의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한다.

요컨대 NCLIS(2008년에 IMLS에 통합됨)는 도서관·정보서비스 정책수행에 관하여 대통령과 의회에 자문, 도서관·정보요구와 관련된 조사와 연구, 전국적 도서관·정보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획의 개발, 연방정부·주정부·지역정부·사설기관에 대한 문헌정보학 자문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2) 이러한 정책자문과 연구개발의 결과는 각종 보고서로 발간되는데, 1971년부터 2006년까지 생산된 보고서는 78종에 달한다.3)

2. 영국의 박물관·도서관·문서관평의회(MLA)

1970년대 초반까지 영국의 대다수 도서관 연구활동은 교육과학부 소속의 OSTI(Office for Scientific and Technical Information)가 지원하는 연구비로 수행되었다. 그러다가 1973년 국가도서

2) 이용남, “미국과 영국의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조직과 활동에 대한 분석,” 한국비블리아, 제14권 제2호(2003), pp.112-113.

3) <<http://www.nclis.gov/about/NCLISPublications.pdf>>.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39권 제2호)

관(BL)이 설립되면서 연구기금의 제공기능이 BL로 이관되었으며, 도서관연구개발부가 설립되어 주관하다가 연구혁신센터(British Library Research & Innovation Centre)로 발전하였다. 1999년에는 BLRIC 기능이 LIC(Library & Information Commission)로 이전됨으로써 크게 위축되었다.

영국의 도서관·정보위원회(LIC)는 도서관·정보서비스 정책을 정부기관에 자문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연구개발 및 국제활동 등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2000년 4월에는 박물관·미술관위원회와 통합하여 'Resource : The Council for Museums, Archives and Libraries'로 재출범하여 지속적인 정책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계속하였다. 2004년에는 명칭을 MLA(The Museums, Libraries and Archives Council)로 개칭하여 국가차원의 도서관·정보서비스와 관련된 각종 정책을 연구하고 자문하고 있다. MLA는 정부부처인 DCMS(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의 재정지원으로 운영되는 비정부공공기구로서 산하에 사무처와 소위원회를 두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도서관·정보분야 발전전략과 정책에 관련된 연구계획 결정 및 조정, 중앙정부·지방정부·지역단체·기업체 등에 대한 자문, 정책제안 및 성명서 발표, 조사연구 및 각종 보고서 간행⁴⁾, 도서관·정보분야의 국제활동, 위원회 활동보고서의 주무부처 제출, Loughborough 대학의 도서관 통계작성 지원 등이 있다.

그런가 하면 문헌정보학이나 정보관리학과가 개설된 대학이 도서관·정보연구소를 설립·운영하는 사례⁵⁾도 있다. 대개는 현장중심의 실용적 연구에 주력한다.

3. 체코의 도서관연구소(LI)

체코의 도서관연구소(Library Institute), 조직상 명칭인 사서정보센터(Information Centre for Librarianship)는 1954년에 문화부 소속으로 설립되었으며, 1959년에 국립도서관 직속으로 이전하였다. 1989년 사회주의가 붕괴된 후에는 문화부의 지원을 받았으며, 2005년 재편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연구소에는 명칭과 달리 연구기능만 수행하는 별도의 연구직원이 없으며, 외부의 연구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연구기금도 확보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도서관연구소는 자체적으로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는데 그치고 있다. 2007년 현재 인력은 소장을 포함하여 총 17.5명⁶⁾이고, <그림 1>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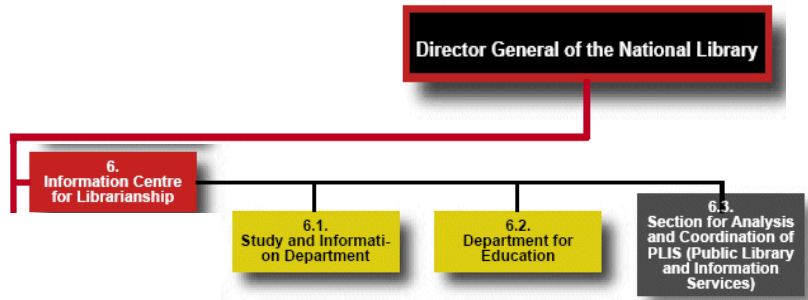
4) 최근 7년간(2001~2007) MLA가 연구하거나 용역·발주하여 출판한 자료는 총 41중에 달한다
(http://www.mla.gov.uk/website/publications/browse_by_date/browse_by_date/).

5) Centre for Research in Library and Information Management(CERLIN), the Manchester Metropolitan University, Centre for the Public Library and Information in Society, the University of Sheffield, Library and Information Statistics Unit, Loughborough University.

6) 정규직원 17명과 주당 정규직원 절반의 시간을 근무하는 시간제 직원 1명을 의미한다.

7) National Library of the Czech Republic, *Annual Report 2006*(Prague : The Library, 2007), p.64.

처럼 3개 하부단위(조사정보과, 교육과, 공공도서관 및 정보서비스 분석조정팀)로 구성되어 있다 (National Library of the Czech Republic 2007, 64). 각각의 역할은 <표 1>과 같다.



<그림 1>

<표 1> 체코 국립도서관연구소의 하부조직과 역할

부서명	인력	주요 역할
조사 정보과	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도서관 내 3만권의 장서를 가진 문헌정보학도서관의 운영 및 서비스 제공 • 체코 문헌정보학 서지목록 작성 • 체코 및 세계 도서관학의 최근 쟁점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 목록과 출판 • IFLA 활동 및 국제프로그램과 사업에 대한 정보수집·제공, 국제 정치단체의 도서관에 대한 견해에 관한 정보수집·제공, 관련문헌에 대한 접근서비스 • 문헌정보학 분야의 문헌 및 참고 DB 구축 및 이용환경 제공 • 도서관에 대한 최신 및 특별 조사 수행에 대한 협력
교육과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계를 위한 교육, 재교육, 훈련, 세미나, 강의 및 특별 교육프로그램 운영 • 도서관학 교육에 대한 정보와 상담의 제공 • 고교 및 대학의 문헌정보학 공부를 위한 입학가능성에 대한 조사결과 제공 • 문헌정보학 전문가와 졸업생을 위한 국립도서관 교육원 시설 및 실용교육 제공 • 교육프로그램 및 학교 교과과정에 대한 평가 수행 • 문헌정보학 전문가 및 학생의 국립도서관 견학프로그램 운영 • 국내외의 도서관 연구기관과의 협력
공공도서관 정보서비스 분석 및 조정팀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코 도서관의 조직 및 기능의 발전을 위한 개념, 방법, 규범, 법적 자료 준비 • 도서관과 정보기관 및 이들의 운영기관에 대한 자문, 상담, 전문적 서비스 제공 • 공공도서관 및 기타 도서관 데이터 수집, 도서관·정보기관에 대한 주소록 작성·참여 • 국가 차원의 공공도서관 지원기금 총괄, 지원 도서관의 업무실적 평가 • 도서관의 대중정보서비스에 대한 기금지원 프로그램의 운영·총괄 • 저작물 사용을 위한 이용료 문제와 관련하여 도서관을 대표하는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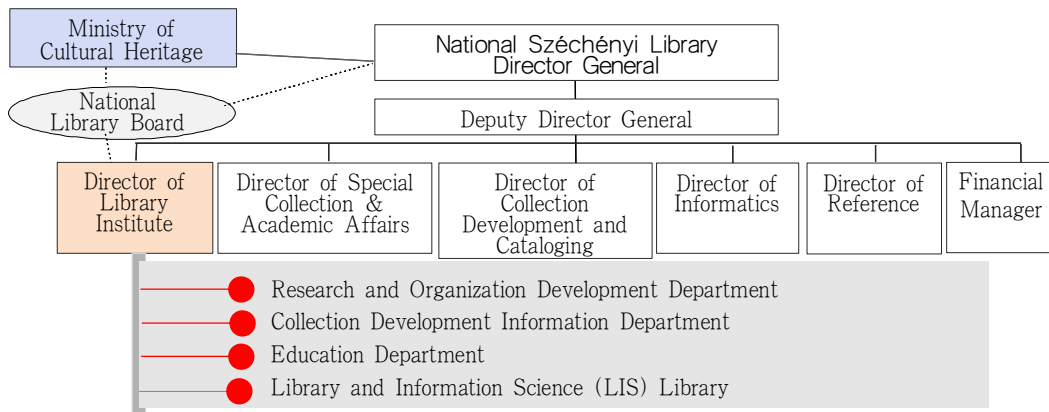
체코 도서관연구소의 특징은 국립도서관 내에 설치된 문헌정보학도서관 운영에서부터 사서교육 및 도서관과 관련 연구 및 분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이다. 또한 소장은 직제상 국립도서관 소속의 도서관연구소장인 동시에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과 사서협회장을 겸하고 있는 사실도 특이하다.

4. 헝가리의 도서관연구소(HLI)

도서관시스템의 근거법령인 「공공도서관서비스를 위한 법률」(Act CXL of 1997) 제4장 제62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헝가리 도서관연구소(Hungarian Library Institute)는 국립도서관에 존재 하던 CLSM(The Centre for Library Science and Methodology)의 후신이다. 현재 HLI의 직원 수는 30명이며, 하부조직은 <그림 2>와 같다.⁸⁾

HLI의 법적 위상은 문화유산부 규정에 따라 헝가리국립도서관(National Széchényi Library)에 소속되어 있으나, 문화유산부 산하의 도서관과(Library Department)가 관리·감독한다. HLI 소장의 임기는 5년이고, 문화유산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 국립도서관의 관장이 임명하며, 직급은 국립도서관의 부장(5명)과 동등하다. 이 연구소는 자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주로 국가 및 공공도서관 문제에 국한하고 있다.

HLI의 목표는 개별도서관의 효율적 운영과 도서관 시스템의 통합적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다. 구체화하면 도서관 전문직의 계속교육 및 임용 후의 교육과정 제공, 문헌정보업무의 이론 및 실무와 관련된 문헌정보서비스 제공, 헝가리의 최근 출판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도서관 수서업무의 지원, 국립도서관시스템의 운영과 도서관 이용에 관련된 연구개발 활동의 수행, 도서관 및 관련분야의 업무 절차 및 과정에 대한 기준과 지침의 제정, 도서관과 사회의 상관관계 발전, 전국 통계자료의 요약, 분석, 제공, 기타 정관에 규정된 업무 등이다.



<그림 2> 헝가리 국립도서관 산하 도서관연구소의 조직도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동향 뿐만 아니라 국내 도서관 정책을 고려하여 연구, 교육, 조직, 출판활동을 수행하고 문헌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지식기반(정보) 사회를 구축하기 위하여 도

8) <http://www.oszk.hu/frame_en.htm?eng/konyvtar/szervfel/szervfel_index_en.htm>.

서관계의 활동을 진작시키고 조정한다. 구체적인 책임과 역할은 국립 및 공공도서관 관련문제를 조사·연구하는데 있지만, 세부 활동에는 '도서관분야의 연구 및 분석', '도서관 개발과 감독', '국제 관계 개선', '사서직 교육', '문헌정보학도서관의 운영과 정보제공', '도서관 수서의 지원', '출판' 등이 망라되어 있다.

5. 일본의 산타마도서관연구소

일본에는 영미의 국가위원회, 동유럽의 도서관연구소와 같은 기구가 없다. 국가도서관인 국립국회도서관(National Diet Library)의 경우, 관서관의 하부조직 가운데 '사업부' 산하의 '도서관협력과-조사정보계'가 조사 및 연구기능을 수행하여 '図書館に関する調査・研究のページ'(Current Awareness Portal)를 통하여 공개하고 있다.

반면에 자치단체의 연구조직을 대표하는 사례로는 산타마도서관연구소(三多摩図書館研究所)를 들 수 있다. 이 연구소의 탄생배경은 초후시(調布市)가 대규모 중앙도서관을 건설하면서 위탁관리를 제안한데서 출발한다. 이에 타마지역의 도서관계는 항의방문하고 독자적 학습회를 개최하며 서명운동, 홍보물의 호별 배포, 위탁반대위원회의 결성과 활동 등을 전개하였다. 이를 계기로 동경도의 자치구, 섬지역을 제외한 3개 타마(북타마, 서타마, 남타마) 지역의 자치단체(총 26시, 3정, 1촌)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공도서관을 주제로 하는 잡지인 「図書館研究三多摩」를 발간하는 한편, 도서관정책을 정리할 목적으로 '산타마도서관연구소'를 설립하였다.

1995년 3월 7일자로 제정된 「図書館研究三多摩規約」 제3조(목적)는 “이 연구소는 주로 타마지역의 공공도서관에 관한 조사, 연구활동을 행하고 타마지역의 현상에 기인한 도서관정책의 창조를 목표로 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타마지역에 근무하는 도서관 직원의 전문적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적인 전문직 집단으로서 공공도서관의 진보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였다. 그리고 제4조는 사업내용을 공공도서관의 조사·연구·정책제언 및 보급, 기관지 발행 및 공공도서관 자료·정보의 수집·활용·출판, 공공도서관 문제에 관한 연구회·연수회 개최, 타마지역 공공도서관 문제에 관심있는 사람들과의 교류와 공동연구, 기타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⁹⁾

이상에서 주요 국가의 도서관 연구기구를 분석한 결과, 몇 가지 공통점과 특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들을 중심으로 국립중앙도서관에 설치된 도서관연구소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서관 및 정보서비스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조직단위의 존재여부 및 설치양태는 국가마다 다르다. 이러한 차이는 각국의 전통과 역사, 도서관 발전과 진흥에 대한 정책적 의지, 도서관 문화

9) <<http://www.hinocatv.ne.jp/~jelhyg/santamatoshokankenkyuujo/shoukaitokiyaku.htm>>.

수준 등에서 기인한다.

둘째, 미국은 국가도서관이 조사연구 활동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NCLIS가 정책수립 및 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가운데 연방정부의 도서관 연구관련 자금을 관리·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의 조사연구는 주정부의 도서관 행정국과 교육위원회, 도서관 및 사서직 단체, 대학원의 학과에서 분산형태로 수행하고 있다. 반면에 영국은 MCDS 자문기구인 MLA의 연구활동이 활발하지만 미국과 마찬가지로 국가도서관에 연구기능 전담부서가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대학의 학과를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프로젝트와 범정부 통계데이터의 수집 및 관리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체코와 헝가리는 국가도서관 내에 도서관연구소를 공식조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다. 그 배경은 문화선진국과 달리 국가도서관이 인프라 확충, 시스템의 개선과 정비, 도서관 역량강화를 위한 연구 및 지원을 주도할 때 실효성과 적용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넷째, 일본은 국가도서관 내에 도서관 연구기능을 전담하는 조직을 두고 있으나 그 성격이 최하위 조직단위라는 점에서 동유럽 및 한국과 차이가 있다. 특이한 것은 동경도의 여러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도서관연구소이다. 그러나 민간위탁에 대항할 의도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조사연구 실적이 미미하며 국내 광역시도에 구성된 사서직 중심의 연구단체인 도서관(사서)연구회와 큰 차이가 없다.

다섯째, 일부 국가에 존재하는 도서관연구소는 국립연구소와 민간연구소로 대별할 수 있다. 전자는 국가도서관 내의 조직단위와 정부부처에 소속된 경우이다. 후자는 주로 대학의 문헌정보학과에 설치된 연구소로서, 프로젝트 중심 또는 국가(도서관)와 협약하여 통계발간과 같은 일부기능을 대행한다. 그리고 국립연구소의 4가지 기능은 자체 연구수행 기능, 공적 연구자금 배정과 프로젝트 관리, 문헌정보학도서관의 운영, 도서관 관련자료의 수집과 제공 등으로 집약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연구소가 직접 조사·분석 및 연구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는 설립의 취지나 목적에 부합한다. 반면에 공적 연구자금을 관리·배정하고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경우는 설립취지나 명칭과 위상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못하다. 주력해야 할 연구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어 국가 연구자금을 관리하는 기관인지 다른 연구집단을 지원하는 조직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것이며, 정체성 시비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

Ⅲ. 도서관연구소의 중장기 발전방안 모색

1. 중장기 발전방안의 비전과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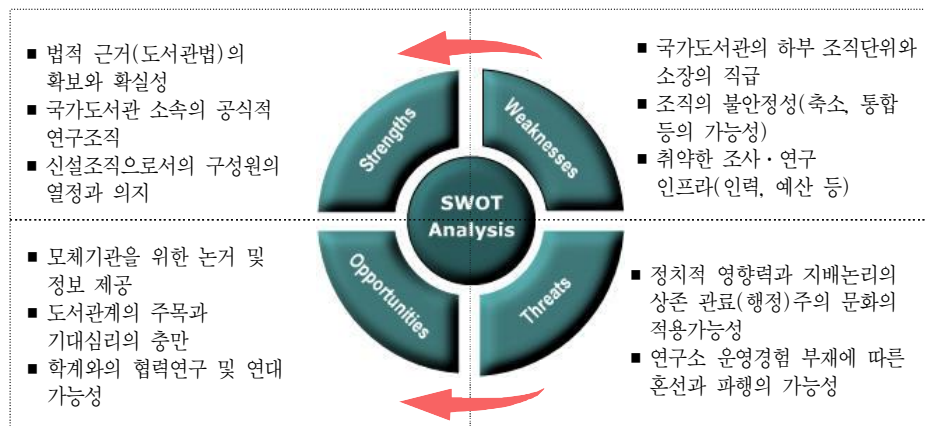
가. 중장기 발전방안의 기본원칙

도서관연구소는 '도서관의 제현상을 연구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학술자료, 시설과 장비를 확보하

고 조사·분석 및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내지 조직단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합의의 연구소가 국가기관에 설치되면 국립연구소, 국가차원의 도서관정책에 관한 연구를 전담할 경우에 국책연구소로 지칭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사례분석이 시사하듯 모든 도서관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국립연구소를 운영하는 국가는 극소수이다. 대부분은 국가도서관이 여러 법정 업무의 하나로 조사·분석 및 연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도서관연구소를 설립한 것은 특이한 사례에 속하며, 도서관 전반의 정책과 제도, 시스템과 서비스, 독서문화 등을 조사·연구해야 할 정도로 인프라와 시스템이 취약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실정법에 근거하여 도서관연구소가 설립·운영되고 있는 이상, 내적으로는 조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며, 외적으로는 모든 도서관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활동에 진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미래 청사진이 필요하고 중요하다.

먼저 도서관 연구소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기 전에 기본원칙이나 지향성을 설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내외부 여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외생적 요소인 기회(Opportunities)와 위협(Threats), 내발적 요소인 강점(Strengths)과 약점(Weaknesses)을 분석하여 조합하는 SWOT 분석법이 동원된다. 이제 출발하는 연구소이기에 그 가능성을 위주로 분석하면 <그림 3>과 같다.



<그림 3> 도서관연구소의 SWOT 분석과 전략적 지향성

따라서 도서관연구소는 내적 약점(하부조직으로서의 지위와 소장 직급, 조직의 축소나 통합과 같은 불안정성, 취약한 조사·연구 인프라)을 해소하고 위협요소(정치적 영향력과 지배논리의 상존, 관료문화의 적용가능성, 운영경험의 부재에 따른 혼선과 파행의 가능성)를 최소화한다는 전제 하에 강점과 기회를 결합하는 방향으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한 기본원칙

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장 중시해야 할 기본원칙은 「도서관법」 제19조 제1항 7호, 즉 ‘도서관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조사·연구’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역할은 도서관연구소의 설립목적인 동시에 존재이유이며, 미래의 정체성과 성장가능성을 결정한다.

둘째, 도서관연구소는 2005년에 국립중앙도서관이 ‘지력강국’을 중장기 비전으로 확정하고 이를 위한 4대 목표(한국 지식문화유산의 자존심과 보고, 지식정보의 유통관리·제공서비스 센터, 도서관정책·연구의 중심체, 국내외 도서관의 교류·협력 창구)¹⁰⁾를 달성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셋째, 중장기 비전과 목표에는 2007년 11월 19일에 개최된 제1차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서 심의·조정된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비전인 ‘국민의 행복·국가발전을 선도하는 도서관’과 3대 목표인 ‘도서관 서비스의 선진화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도서관·정보인프라의 고도화로 국가 지식경쟁력 강화, 유비쿼터스 환경에 따른 미래형 도서관 구현’을 위한 조사·연구 활동이 포함되어야 한다.

요컨대 도서관연구소는 법정 업무인 ‘도서관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상위기관의 중장기 비전인 ‘지력강국’, 그리고 국가전체의 청사진인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국민의 행복·국가발전을 선도하는 도서관’을 발전방안에 내면화시켜야 한다.

나. 중장기 발전방안의 비전과 목표

도서관연구소는 학자집단 및 사서직이 자발적으로 구성된 연구단체와 차원을 달리하는 법정 조직단위이다. 그것은 중장기 비전과 구체적 방향성이 상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함축한다. 게다가 신설 연구소이며 하부 조직단위이기 때문에 통상 독립형 연구소가 차용하는 이념적 가치나 거시적 관념을 원용하기 어렵다. 이에 도서관 현장에 초점을 맞추어 <그림 4>처럼 ‘실사구시형 조사·연구’를 통한 도서관 시스템과 서비스의 선진화’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배경과 이유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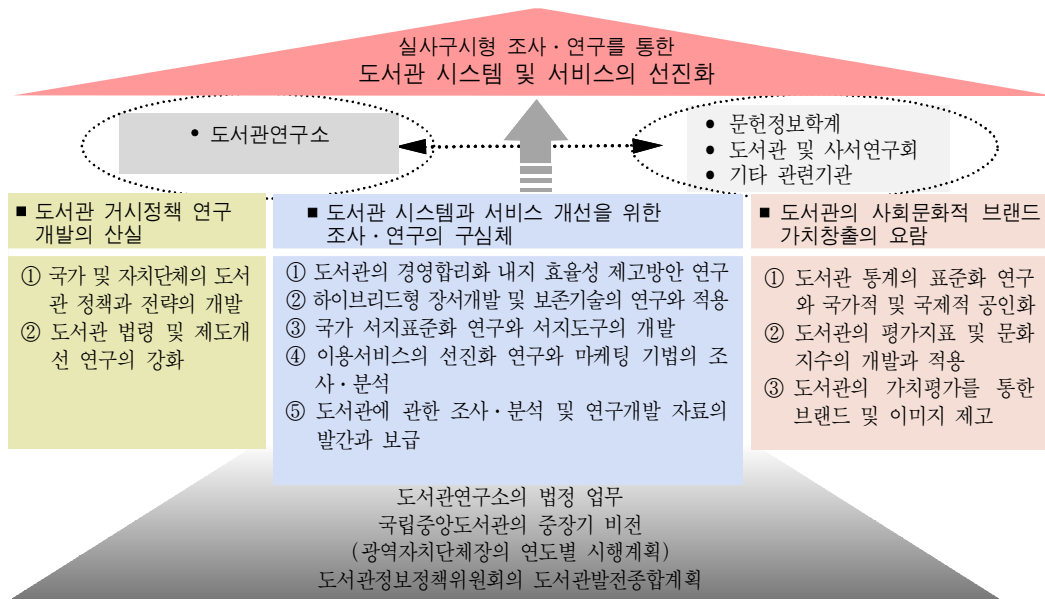
첫째, 도서관연구소의 법정 업무가 매우 한정적이다. 따라서 법령의 규정을 유권해석하거나 초법적 업무를 조사·연구에 포함시켜 대상과 범주를 무리하게 확장하는 과오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 도서관연구소의 연구활동은 학회와 차별화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이론적 연구, 역사적 분석, 신기법이나 동향의 소개, 논증중심의 학회와 달리 도서관 현장의 시스템과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조사활동과 연구개발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셋째, 도서관연구소는 자체적으로 연구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지역대표도서관 및 도서관(사서)연구회와 공동으로 또는 그들의 조사·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촉진할 때 실사구시형 결과를 도출할 수 있고 현장에 적용하거나 접목시키는데 유리하다.

10)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2010(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2005), p.17.

넷째, 도서관 시스템과 서비스의 선진화는 부실한 인프라의 확충과 더불어 국가차원의 정책위원회나 국립중앙도서관이 주력해야 할 과제이다. 양적 확대정책과 질적 충실화 전략을 병행해야 선진국형 도서관 시스템을 정립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조사·연구의 대부분은 도서관연구소의 몫이다.



〈그림 4〉 도서관연구소의 중장기 비전과 목표

이러한 비전, 즉 도서관연구소가 ‘실사구시형 조사·연구를 통한 도서관 시스템과 서비스의 선진화’를 선도하려면 목표를 구체화해야 한다. 이를 위한 ‘실사구시형 조사·연구’의 구체적인 메뉴는 다음의 3가지로 설정한다.

첫째, 국내 도서관계를 위한 거시적 정책개발의 산실이어야 한다. 따라서 국가 및 자치단체의 도서관 정책과 전략의 개발, 도서관 법령 및 제도개선 연구의 강화를 전략적 핵심과제로 설정하여 추진해야 한다.

둘째, 모든 도서관의 시스템과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조사·연구 활동의 구심체가 되어야 한다. 이를 담보하는데 유용한 핵심과제는 도서관의 경영합리화 내지 효율성 제고방안 연구, 하이브리드형 장서개발 및 보존기술의 연구와 적용, 국가 서지표준화 연구와 서지도구의 개발, 이용서비스의 선진화 연구와 마케팅 기법의 조사·분석, 도서관에 관한 조사·분석 및 연구개발 자료의 발간과 보급 등이다.

셋째, 도서관의 사회문화적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고 제고시키는 요람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도서관 통계의 표준화 연구와 국가적 및 국제적 공인화, 도서관의 평가지표 및 문화지수의 개발과 적용, 도서관의 가치평가를 통한 브랜드 및 이미지 제고를 핵심과제로 설정하여 조사·연구하고 적용·검증하는 의지와 행위가 필요하다.

요컨대 도서관연구소 중장기 발전방안의 요체는 비전과 3대 목표, 10대 전략적 핵심과제이다. 환언하면 10대 전략적 과제를 수행하여 '거시정책 연구개발의 산실, 시스템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의 구심체, 사회문화적 브랜드 가치창출과 제고의 요람'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 '도서관 시스템과 서비스의 선진화'를 추구해야 한다.

이러한 상향식 발전방안의 궁극적 목표는 '현장중심의 실사구시형 조사·연구 및 적용과정을 통하여 선진국형 시스템과 서비스로 개조하는데 진력함으로써 모든 이용계층의 접근·향유권을 극대화'하는데 있다. 그 파생적 효과로 도서관의 사회적 존재가치가 제고되고, 모체기관의 비전인 '지력강국화'에도 부응할 수 있으며, 취약한 법적 위상과 연구역량을 강화하는 논거로 활용할 수 있다.

2. 법정 업무와 전략적 과제

도서관연구소는 국민의 세금으로 설립·운영되는 연구조직이다. 따라서 그 명칭에 부합하는 법정 업무와 역할을 수행하여 국가 및 사회에 존재이유를 설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 국내의 여러 문헌정보학회가 이론적 토대를 축적하고 학문적 지평을 확장하는데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도서관연구소가 답습하거나 반복할 필요가 없다. 여전히 후진국 수준인 도서관의 시스템과 서비스를 선진화하기 위한 정책개발과 조사·연구에 주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략적 추진과제에 가용자원과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2006년 10월 4일자로 개정된 「도서관법」 제19조 제3항의 위임규정에 의거하여 개정된 「문화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1조의 3의 제1항과 「동 직제 시행규칙」 제21조의 3은 도서관연구소 업무를 <표 2>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그 가운데 신설된 6호(고전운영실의 운영 및 고서의 수집·등록·보존 및 해제 등)는 상위법령인 「도서관법」 및 「직제」에서 규정한 업무의 범주를 이탈하며, 개정된 2호(자료보존실의 운영 및 도서관 자료의 수선·복원·보존기술 연구)의 전반부 업무인 '자료보존실의 운영'도 상위법령에 배치된다. 모범을 유권해석하여 하위법령에 포함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

〈표 2〉 도서관연구소의 법정 업무

조 문		내 용	비 고	
			개 정	신 설
직제	제41조의3	① 도서관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를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 소속하에 도서관연구소를 둔다.		√
직제 시행 규칙	제21조의3	1. 도서관 정책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2. 자료보존실의 운영 및 도서관 자료의 수선·복원·보존기술 연구에 관한 사항	√	
		3. 도서관 통계 및 평가지표 개발·보급		
		4. 국가 서지의 표준화를 위한 연구	√	
		5. 도서관 관련 조사·연구 자료의 발간 및 배포	√	
		6. 고전운영실의 운영 및 고서의 수집·등록·보존 및 해제 등에 관한 사항		√

이에 학자집단을 상대로 법정 업무와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도를 전자우편 방식으로 설문조사¹¹⁾한 결과, 〈표 3〉과 같이 나타났다. 그리고 우선순위가 1~2위인 법정 업무로 제한한 직급별 및 성별 응답도 큰 차이가 없었으며, 〈표 4〉에 정리한 업무를 추가로 수행해야 할 역할로 인식하고 있다.

〈표 3〉 도서관연구소 법정 업무의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도

법정 업무	우선순위					
	1	2	3	4	5	계*
도서관 정책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28	1	0	1	0	30
도서관 자료보존기술 연구	0	0	4	9	14	27
도서관 통계 및 평가지표 개발·보급	1	12	8	5	3	29
국가 서지표준화를 위한 연구	1	8	12	6	2	29
도서관 관련 조사·연구활동 자료 발간 및 배포	0	9	6	6	8	29

* 일부 법정 업무의 응답수가 30명에 미달하는 것은 결측값(무응답)이 있기 때문임.

〈표 4〉 도서관연구소의 추가적 업무에 대한 인식도

영역	추가적으로 수행해야 할 업무	응답자수	소계(%)
일 반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	1	2(4.8)
	문헌정보학 이론의 도서관 적용	1	
경영관리	건축과 시설, 지원,	2	23(54.8)
	도서관의 정체성, 운영, 마케팅, 균형발전	9	
	법령, 규정, 기준의 제정과 개정	2	
	인력관리, 전문성과 권익신장, 재교육, 직무개발과 개선, 사서교사 수급	10	
자료조직	국가문헌번호사업, 문헌분류정책, 디지털도서관 표준	3	3(7.1)
이용서비스	주제별 웹서비스, 서지개발과 발간, 평생교육	5	5(11.9)

11) 설문지 전문은 '각주 1'의 보고서, pp.135-138를 참고하기 바람.

협력네트워크	관중별 네트워크 구축과 관장	4	5(11.9)
	문화유산 관리와의 연계협력	1	
기 타	자료유통관리, 출판관련 연구, 도서관 설립·운영·서비스 제공의 자문	4	4(9.5)
계		42	

따라서 도서관연구소는 교수집단이 인식하는 법정 업무의 우선순위를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중장기 전략적 과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법정 업무와 추가적 업무를 전략적 과제로 채택해야 한다. 반면에 법령의 자의적 해석으로 「직제 시행규칙」에 삽입한 사무 중 상위법령을 이탈하는 것은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위상정립과 성장·발전 모형

가. 조직체계와 위상정립

먼저 도서관연구소의 법적 성격은 연구기관이고 명칭도 연구소이지만, 소장 직급 및 조직시스템의 측면에서 보면 국립중앙도서관의 과단위 하부조직이다. 즉, 소장의 직급이 중앙행정기관과 하위 행정기관, 직속기관 등의 과(팀)장 보임기준인 4급이며, 전체 조직도상의 위치는 국립중앙도서관장의 직속기관이다.

그렇다면 도서관연구소의 위상과 소장의 직급은 어떻게 정립하는 것이 '도서관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과 조사·연구의 구심체'로서의 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가. 이를 위하여 교수집단의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대외적 위상강화 방안은 <표 5>에서 46.7%(14명)가 문화관광부장관의 소속 기구로 응답한 반면에 36.7%(11명)는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소속으로, 13.3%(4명)는 현재를 적절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리고 소장의 바람직한 직급은 <표 6>처럼 고위공무원단(3급)이 56.7%(17명)로 높은 가운데 2급이 23.3%(7명)이며, 현재의 4급은 20%(6명)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5> 도서관연구소의 바람직한 위상에 대한 인식도

구 분	직 급					성 별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	계(%)	남자	여자
국립중앙도서관장 직속기구(현행)	0	1	1	2	4(13.3)	3	1
문화관광부장관 소속기구	0	5	5	4	14(46.7)	9	5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소속기구	0	1	5	5	11(36.7)	8	3
기 타	0	0	0	1	1(3.3)	1	0
계	0	7	11	12	30(100.0)	21	9

〈표 6〉 도서관연구소장의 바람직한 직급에 대한 인식도

구 분		직 급 별				성 별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	계(%)	남자	여자
현행 직급(4급)		1	4	1	6(20.0)	4	2
고위 공무원단	3급	4	5	8	17(56.7)	13	4
	2급	2	2	3	7(23.3)	4	3
계		7	11	12	30(100.0)	21	9

따라서 바람직한 위상을 확보하려면 현재 4급인 소장의 직급을 고위공무원단(3급 또는 2급)으로 격상하고 조직적 편제도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도서관정보정책위원장의 소속기구로 이관해야 한다. 그러나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법률에 근거한 심의·조정위원회라 하더라도 조직적 안정성과 지속성이 떨어지므로 더 포괄적인 명칭채택과 더불어 문화관광부 직속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현재 도서관연구소의 인력구성을 보면 소장을 포함하여 총 22명이지만 조사·연구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5명에 불과하며, 소장 직급이 4급이기 때문에 하부조직을 둘 수 없다. 반면에 체코국립도서관의 도서관연구소장은 도서관 협력분야의 부관장인 동시에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이고 산하에 3개 과(팀)를 두고 있으며, 헝가리 도서관연구소장도 부장급이며 하부조직은 4개 부서(연구·조직개발과, 장서개발정보과, 교육과, 문헌정보학도서관)에 총 3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양국을 벤치마킹하지 않더라도 조직확대와 위상제고는 시급하다.

어떤 기관이든 하부조직의 구성체계와 인력구조가 그 기관의 성격과 정체성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 역량발휘와 발전가능성을 가늠한다. 따라서 2006년의 기초연구¹²⁾에서 제안한 조직체계 및 인력구성의 모형을 보완하여 제안하면 〈표 7〉과 같다. 그 골자는 다음과 같다.

〈표 7〉 도서관연구소의 인력구성과 사무분장 모형

구 분(직급)	인력구성	사무분장 내역	주요 협조부서
소장 (2급)	1	• 도서관연구소 총괄	
연구지원팀 (4급)	7	• 일반 행정 및 사무 • 각종 보고 및 업무지원 • 연구원의 연구활동 및 연구자료 지원 • 연구자 선발·채용·개발 지원 • 연구인력 Pool DB 구축 및 관리 • 연구소 홈페이지 개발, 관리, 운영 • 도서관 분야 전문정보, 연구정보 전산화 사업 • 연구소 홍보자료 제작 및 홍보 • 기타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총무과 도서관운영협력과

12) 윤희운,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및 도서관연구소 운영방안 연구(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2006), pp.135-139.

<p>기획연구팀 (4급)</p>	<p>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기획조정 • 연구과제 발굴 및 프로젝트 사업 관리 • 도서관 발전정책 관련 연구 • 도서관 시스템 및 법제 등의 연구 • 각종 기준과 지침 등의 입안 및 개정 연구 • 국내외 도서관 통계지표 연구 및 개발 • 자료처리 및 보존기술 연구 • 위탁 연구과제 심의 및 연구 •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연수 프로그램 개발 • 각종 연구자료(보고서, 총서, 학술지 등) 발간 • 국외 도서관 관련 핵심자료의 번역 출간 • 도서관 관련 국제교류 및 학술활동 주관 	<p>도서관정책과 사서능력발전과 국립장애인도서관지 원센터</p>
<p>조사통계팀 (4급)</p>	<p>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 및 정보서비스 조사도구의 수집 • 도서관 및 정보서비스 수행과 분석 • 도서관 현황통계 조사(정기, 비정기) • 도서관 관련 통계자료 수집 및 분석 • 도서관 통계관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 • 도서관 관련 국내외 언론기사의 조사 및 수집 • 도서관 관련 각종 여론조사 및 모니터링 	<p>도서관운영협력과</p>
<p>도서관연구 자료실 (사서사무관)</p>	<p>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연구자료실 운영 • 국내외 연구관련 학술자료 수집 및 관리, 제공 • 연구원의 연구활동 및 연구자료 지원 • 도서관 및 문헌정보학 분야 참고봉사 제공 • 각종 정보주지서비스(SDI, RS) 제공 	<p>자료기획과</p>

첫째, 도서관연구소장에는 도서관계 또는 문헌정보학계의 전문가가 보임되어야 하며, 특히 현장 및 학계의 경력이 풍부한 인물이 가장 바람직하다.

둘째, 조직체계의 경우, 소장 아래에 최소 3개 연구팀(기획연구팀, 조사통계팀, 연구지원팀)과 자료실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획연구팀은 기획업무와 연구개발을 주도하되, 이관된 보존 및 고전운영 업무를 집중 연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조사통계팀은 조사분석 및 통계개발·유지를 핵심업무로 삼되, 역시 연구기능을 담당해야 한다. 연구지원팀은 계수준 조직단위로 출발하되 연구소 위상강화와 더불어 과수준으로 격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서관연구자료실은 국립중앙도서관 내의 문헌정보학자료실을 연구소 소속으로 이관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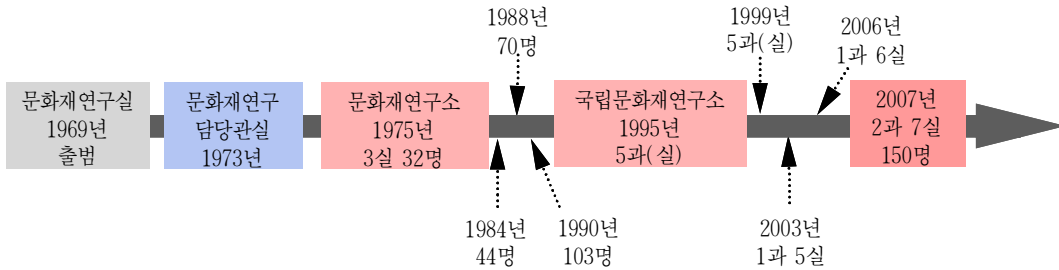
셋째, 인력구성은 소장을 제외한 총 25명 정도로 계상하고, 팀장 직급은 4급 일반직 또는 특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임하되 통상적인 연구소의 선임연구원에 상당하는 자격요건을 소지한 자가 바람직하다. 또한 연구지원팀에는 행정사무관을, 도서관연구자료실에는 사서사무관을 배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넷째, 적정 인력으로 제안한 총 25명은 기존의 행정직 및 사서직 공무원과 신규 채용으로 확보하되, 연구지원팀 내의 운영지원계 사무를 수행할 직원은 행정직으로 보하고 도서관연구자료실에는 사서직을 배치해야 한다. 그리고 기획연구팀의 모든 인력은 석박사학위 소지자를 공모하는 반면에 연구지원팀과 조사통계팀은 사서직 중에서 유자격자를 전직시키는 방식과 공채를 병행하여 여러

직종(사서직, 행정직, 연구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외에도 파견형식의 연구인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

어느 분야를 불문하고 현실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국책연구소는 피나는 노력과 부단한 혁신을 계속하여 왔다. 그 결과로 명실상부한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을 따름이다. 이를 대표하는 국가 연구기관이 국립문화재연구소인데, 지난 38년간(1969~2007) 인력확충 및 조직성장의 궤적을 도시한 <그림 5>를 보면 도서관연구소가 반면교사로 삼기에 충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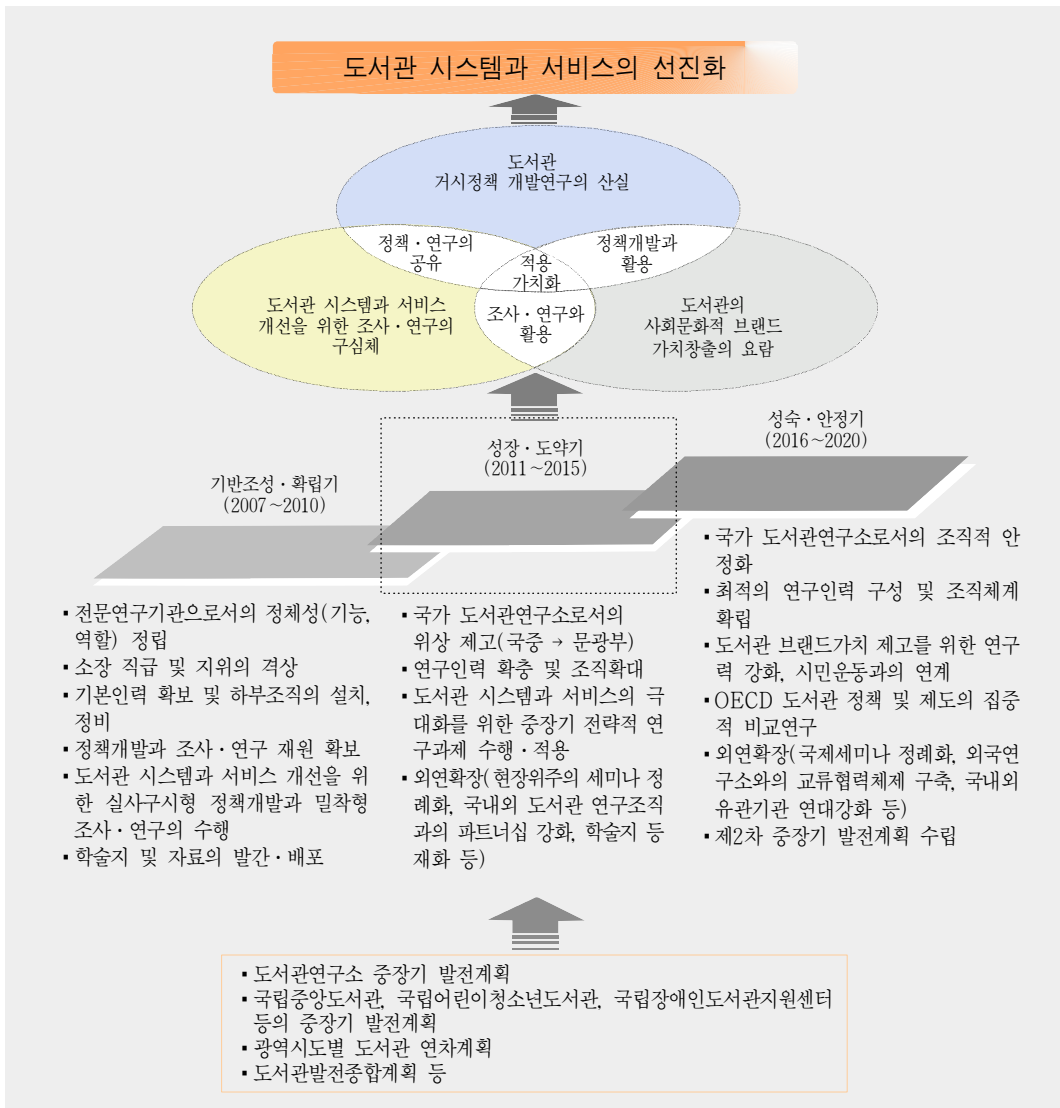
<그림 5>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성장·발전 과정

따라서 도서관연구소는 취약한 현실을 개탄하는 것으로 그치거나 패배주의적 사고에 매몰되어 의기소침할 이유가 없다. 게다가 신설된 연구조직은 시행착오를 거듭하더라도 도전하는 자세로 무수한 도상연습을 계속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도서관연구소도 2007년을 원년으로 하는 중장기 성장·발전모형이 필요하다. 2007년부터 2020년까지 3단계로 구분하여 제1단계를 기반조성·확립기, 제2단계를 성장·도약기, 제3단계를 성숙·안정기로 명명한 마스터플랜의 스펙트럼과 핵심내용을 제시하면 <그림 6>과 같다.

제1단계(2007~2010년)인 기반조성·확립기는 도서관연구소의 정체성과 역할, 부침과 명운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다. 또한 도서관 현장의 시스템과 서비스를 조사·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도서관 연구기관으로서의 정체성(기능, 역할) 정립, 소장 직급의 상향조정(4급 → 3급 또는 2급) 및 지위의 격상, 거시정책 개발과 조사·연구를 위한 기본인력 확보 및 하부조직의 설치·정비, 자체적인 조사·연구 수행·위탁연구 발주·기초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조사·연구비의 안정적 확보, 도서관 시스템과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실사구시형 정책개발과 밀착형 조사·연구의 수행 등에 모든 전략적, 정치적 역량을 동원해야 한다.

제2단계(2011~2015년)인 성장·도약기는 확립된 기반 위에서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는 시기를 말한다. 이 단계는 도서관연구소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도서관 시스템과 서비스를 극대화

하기 위한 조사·연구에 주력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립도서관연구소로서의 위상제고를 위한 관할주체의 이관(문화관광부로 변경), 전체 인력의 70% 이상을 연구인력으로 확충하고 사무분장을 재정비하는 등의 조직 확대 및 개편, 시스템과 서비스의 극대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적 과제 수행과 적용방안 강구, 외연확장을 위한 현장위주의 세미나 정례화·도서관 연구조직과의 파트너십 강화·학술지 등재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



〈그림 6〉 도서관연구소의 중장기 성장·발전 모형

제3단계(2016~2020년)인 성숙·안정기는 지속적 성장과 도약을 기반으로 도서관연구소의 정체성과 위상, 인력구성과 조직체계, 연구수행 등이 견고하게 자리매김하는 시기를 말한다. 그러나 다른 모든 조직체와 마찬가지로 형성, 성장, 성숙, 쇠퇴로 이어지는 수명주기에서 예외일 수 없기 때문에 전국 도서관을 대상으로 조사·연구하는 국가 도서관연구소로서의 조직적, 법적, 제도적 안정성 확보, 도서관 연구분야의 싱크탱크를 위한 최적의 연구인력 구성 및 조직체계를 확립하는 동시에 정치적 내지 가변적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의 구비, 도서관의 사회문화적 브랜드 가치를 제고시키기 위한 밀착형 연구력의 강화와 대중적 지지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시민운동과의 연계활동 주도, OECD 국가의 도서관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집중적인 비교연구, 외연확장을 위한 국제세미나의 정례화·외국 도서관연구소와의 교류·협력체제 구축·국내외 유관기관과의 연대 강화 등, 제2차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등의 전략적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요컨대 도서관연구소의 정체성은 '도서관을 위한 정책개발과 조사·분석'에서 발원한다. 그것은 조사·연구를 핵심기능으로 상정·추진할 때 핵심역량이 강화되고 비교우위의 배타적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정치적 흥정에 따른 축소 내지 통폐합 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반조성에 주력하고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통하여 전문 연구기관의 위상과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4. 운영협력 및 연구협력 체계

중장기 비전과 목표가 인간의 두뇌와 신경이라면 운영체계는 수족과 근육에 해당한다. 더 세속적인 표현으로는 '지행합일'인데, 아무리 많은 또는 정통한 지식을 습득하더라도 실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그것은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려면 운영체계와 협력모형이 중요하다는 것을 함축한다.

가. 바람직한 운영협력 체계

도서관연구소의 운영체계는 협의와 광의로 양분할 수 있다. 전자는 다시 연구소 내부의 업무시스템과 모체기관 산하부서와의 관계를 고려한 운영체계를 지칭하며, 후자는 모체기관 뿐만 아니라 조사·연구 기능을 수행하거나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관련부서와의 역학적 상관관계를 말한다.

먼저 내부시스템은 소장을 정점으로 하는 구성인력의 상호관계, 즉 조직구조상의 사무분장, 역할분담,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의미한다. 다른 행정부서와 달리 연구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관료적 계층구조와 계급적 서열을 강조하는 체계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소장의 직급이 격상되더라도 자율성과 수평적 연계성을 강조하는 운영시스템을 갖출 때 조사·연구에 무리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국립중앙도서관의 하부조직으로 존속하는 상황에서는 다른 조직단위와의 관

계가 중요하므로 역할분담과 협조지원을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도서관 정책개발과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측면에서 모체기관 및 문화관광부와 무관할 수 없다. 가령 도서관연구소는 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연구하고,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과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는 봉사대상 계층에 따른 정책을 각각 수립하며,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은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이에 따른 갈등은 각종 기준 제정, 직무분석, 교육연수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협력망 구축 등에서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 따라서 여러 단위조직이 각각 수행·발주하는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는 극히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도서관연구소가 주관하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각 단위조직은 부서이기주의에 입각하여 해석하는 자세를 지양해야 한다. 만약 도서관연구소의 역량이 미약하다면 조사연구 기능을 강화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이다. 도서관연구소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의 조사·연구를 위한 프로젝트의 발주·관리·운영체계도 개선되어야 한다. 물론 기획단에도 전문가가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조사·연구하고 관련정책을 개발할 수 있지만, 분장사무의 대상과 범위를 감안하면 외부 연구집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도서관연구소의 존속과 발전을 기대한다면 사고와 발상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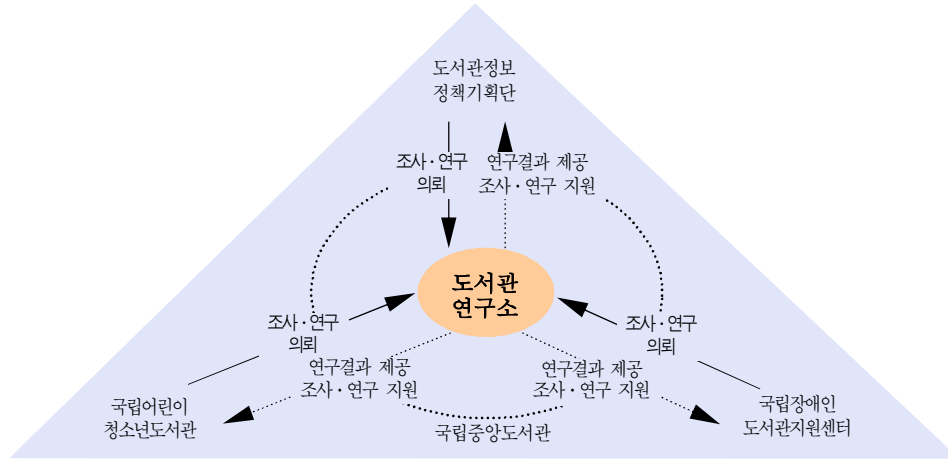
이상에서 논급한 도서관연구소의 정책개발과 조사·연구를 위한 운영체계는 내적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모체기관 및 상부기관과의 역할분담 내지 영역구분 문제이다. 도서관연구소가 법정 연구조직임에도 소장의 낮은 직급을 방치하고 인력확충을 외면하는 가운데 연구예산마저 부족하다면, 또한 도서관 실무나 행정업무에 매달린다면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 따라서 도서관연구소, 모체기관의 다른 부서,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그림 7>처럼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의 수행주체와 활용부서를 구분하는 방식으로 조정해야 한다. 그 이유는 「도서관법」 제19조 제2항이 규정한 도서관연구소의 설립목적, 즉 '도서관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에서 후자인 정책개발과 조사·연구는 전자인 도서관 발전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지만, 양자의 대상과 범위를 제한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 대외 연구협력 체계

도서관연구소는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기능을 수행해야 할 조직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체기관 및 문화관광부와의 유기적 협력 및 운영체계 정립에 못지않게 외부 전문가 집단 및 관련단체와의 연구협력 체계도 중요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서관연구소가 조사·연구·개발해야 할 정책은 특정한 사안의 미시적 계획에서 국가차원의 종합계획과 전략적 모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둘째, 도서관연구소의 조사·연구인력이 매우 부족하다. 질적 측면은 고사하더라도 통상 5~6명의 교수로 구성된 대학의 문헌정보학과보다 더 취약하다. 따라서 자체적인 연구보다 외부 전문가에게 더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림 7〉 도서관연구소의 조사·연구를 위한 운영협력 체계 모형

셋째, 고급 연구두뇌를 대거 확보하더라도 각자의 전공과 분야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심층적 조사·분석과 난해한 현안을 연구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사계의 전문가에게 의뢰하거나 협력 연구가 불가피하다.

넷째, 내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조사·연구할 능력이 충분하더라도 주제에 따라 문헌정보학계, 한국도서관협회, 관종별 협의회, 국회도서관, 국가기록원, KERIS, KISTI,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등과 연계할 때 더 우수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섯째, 연구과제에 따라서는 외부 전문가가 수행할 때 결과를 신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적 결정과 증빙자료로 활용하는데 유리하다. 조직단위를 신설하거나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외부에 의뢰하여 논거를 확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도서관연구소는 내적 연구역량의 한계와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연구수행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협력체계를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에 적시한 방향으로 연구인력 관리시스템을 갖추는 한편, 학회를 비롯한 연구기관 및 관련단체와의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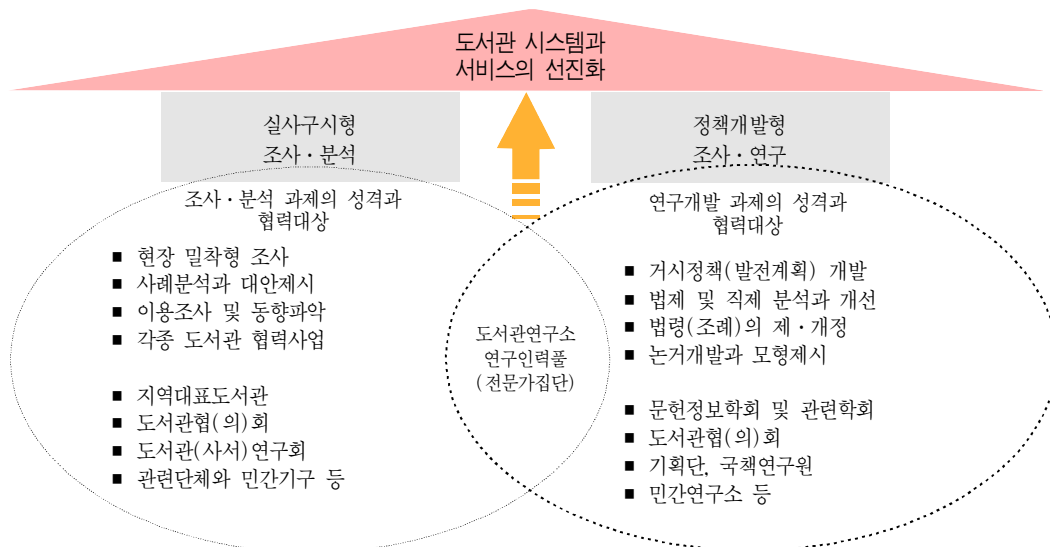
우선 외부 전문가 중에서 연구력이 우수한 학자를 엄선하여 DB를 구축하고 연구인력풀(Researchers Pool)을 가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미 연구자의 전공, 경력과 연구업적 등이 한국학술진흥재단 인력DB에 탑재되어 있어 쉽게 구성할 수 있다.

더욱 중요한 과제는 외부의 전문학회나 관련단체와 연구협력 체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교수들의 인식도를 조사한 <표 8>을 보면 1순위는 문헌정보학계의 학술단체(학회), 도서관정보 정책기획단, 도서관협회(KISTI, KERIS, 국회도서관) 등의 순으로, 2~3순위는 한국도서관협회, 대학의 문헌정보학과 및 관련학과,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의 순으로 각각 높았다. 그리고 도서관연구소가 사서중심의 도서관(사서)연구회와 협력해야 한다는 의견도 각 순위에서 고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인식도를 바탕으로 유기적 연구협력 체계를 제안하면 <그림 8>과 같다. 즉, 사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인력풀을 중심으로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 다음에 학계,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기타 연구기관, 도서관협(의)회, 지역대표도서관, 사서(도서관)연구회, 관련단체 및 민간기구 등과 선별적으로 협력·공조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가령 정책개발형 조사·연구(거시정책 및 발전계획의 수립, 직제 분석과 개선, 법령 제·개정, 논거개발과 모형제시 등)가 필요하면 학계와 연구기관의 협력시스템을 활용하고, 실사구시형 조사·분석(현장 밀착형 조사, 사례분석과 대안제시, 이용조사 및 동향파악, 도서관 협력사업 등)은 도서관계 및 관련단체와 연구협력 체계를 가동할 필요가 있다.

<표 8> 도서관연구소의 연구협력기관에 대한 인식도

구 분	우선순위							계*
	1	2	3	4	5	6	7	
문헌정보학계의 학술단체(학회)	21	4	3	2	0	0	0	30
사서중심의 도서관(또는 사서)연구회	0	3	5	7	10	3	1	29
대학의 문헌정보학과 등 관련학과	0	8	7	3	5	3	4	30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문화관광부 소속)	7	5	6	6	2	3	0	29
한국도서관협회 등(KISTI, KERIS, 국회도서관)	2	10	9	5	4	0	0	30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0	0	1	4	4	13	6	28
국가기록원	0	0	1	2	4	7	15	29



<그림 8> 도서관연구소의 조사·연구를 위한 대외 협력체계 모형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외국의 도서관 및 관련 연구기구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는 한편, 도서관연구소를 SWOT 분석하고 교수집단을 상대로 바람직한 역할과 위상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여 중장기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장기 비전은 '실사구형 조사·연구를 통한 도서관 시스템과 서비스의 선진화'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거시정책 연구개발의 산실, 시스템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의 중심체, 사회문화적 브랜드 가치창출과 제고의 요람'을 3개 목표로 설정하여 시스템과 서비스의 선진화를 추구해야 한다.

둘째, 법정 업무인 '도서관 정책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도서관 통계 및 평가지표 개발·보급, 국가 서지의 표준화를 위한 연구, 도서관 관련 조사·연구 자료의 발간 및 배포'를 전략적 핵심과제로 설정하여 추진해야 한다. 다만 「직제 시행규칙」에 추가한 '자료보존실 및 고전운영실의 운영'은 정체성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리고 교수집단이 인식한 추가적 업무도 추진과제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도서관연구소가 바람직한 위상을 확보하려면 소장의 직급을 4급에서 고위공무원단으로 격상하고 조직편제도 문화관광부 직속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조직체계는 총 25명 정도의 최소 3개 연구팀(기획연구팀, 조사통계팀, 연구지원팀)과 도서관연구자료실로 구성해야 한다. 기획연구팀은 기획업무와 연구개발을, 조사통계팀은 조사분석 및 통계개발·유지를 핵심업무로 하며, 연구지원팀은 계수준으로 출발하되 연구소 위상이 강화되면 과수준으로 격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도서관연구소의 중장기 성장·발전 모형은 2007년부터 2020년까지 3단계로 구분하여 제1단계를 기반조성·확립기, 제2단계를 성장·도약기, 제3단계를 성숙·안정기로 명명하여 제안하였다. 제1단계(2007~2010년)는 도서관의 시스템과 서비스에 대한 조사·분석과 대안제시에 주력하고, 제2단계(2011~2015년)는 연구소 자체의 발전과 도서관 시스템과 서비스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사·연구를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제3단계(2016~2020년)는 지속적 성장과 도약을 기반으로 연구소의 정체성과 위상, 인력구성과 조직체계, 연구수행 등이 자리매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도서관연구소의 내적 운영협력 체계는 모체기관의 다른 부서 및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과 함께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의 수행주체와 활용부서를 구분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외적으로는 사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인력풀 중심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학계,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연구기관, 도서관협(의)회, 지역대표도서관, 사서(도서관)연구회, 관련단체 등과 선별적으로 협력·공조하는 전략, 즉 정책개발형 조사·연구는 학계와 연구기관의 협력시스템을 활용하고, 실사구시형 조사·분석은 도서관계와 협력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

